

# 계획적 행위이론에 근거한 성인 남성의 금연행위 예측 요인

진달래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Ajzen(1991)의 계획적 행위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적용하여 지역사회 성인 흡연자 중에서 보건소 금연사업에 참여한 만 20세 이상 59세 이하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금연의도와 금연행위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고 첫 조사 후 4주시점에 금연행위 수행 유무를 조사하여 금연행위 예측 요인을 설명하고자 함으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성인 남성의 금연의도 및 금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및 금연행위 수행 유무에 따른 계획적 행위이론의 변인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도시 일개 구 보건소 금연사업(3곳의 보건분소 및 2곳의 4년제 대학)에 참여한 만 20세 이상 59세 이하의 성인 남성 13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방법으로 조사한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자료수집기간은 2005년 9월 1일 ~ 2005년 11월 15일까지 약 3개월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version 1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 및 금연관련 특성, TPB 변인의 문항특성은 기술적 통계방법으로, 변인간의 관계규명은 피어슨의 상관계수로 분석하였고 금연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가 금연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4주 후 금연행위 수행 유무에 따른 TPB 변인들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고 금연행위 수행 유무를 종속 변수로 하여 금연의도와 지각된 행위통제가 금연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1) 금연행위에 대한 태도( $r=0.462$ ,  $p=0.000$ ), 주관적 규범( $r=0.435$ ,  $p=0.000$ ), 지각된 행위통제( $r=0.556$ ,  $p=0.000$ )는 신념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금연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r=0.354$ ,  $p=0.000$ ),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위통제( $r=0.359$ ,  $p=0.000$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2) 금연의도와 금연행위에 대한 태도( $r=0.259$ ,  $p=0.002$ ), 주관적 규범( $r=0.380$ ,  $p=0.000$ ), 지각된 행위통제( $r=0.573$ ,  $p=0.000$ )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연행위와 주관적 규범( $r=0.220$ ,  $p=0.01$ ), 지각된 행위통제( $r=0.339$ ,  $p=0.000$ ), 금연의도는( $r=0.422$ ,  $p=0.000$ )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3) 금연의도의 예측 요인인 금연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는 금연의도를 38.9% 설명하였으며( $F=28.428$ ,  $p=0.000$ )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지각된 행위통제( $\beta=0.511$ ,  $p=0.000$ ), 금연행위에 대한 태도( $\beta=0.173$ ,  $p=0.018$ )순으로 금연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나, 주관적 규범( $\beta=0.136$ ,  $p=0.081$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4) 금연자와 흡연자 모두 금연의도 평균 점수가 긍정적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t=5.683$ ,  $p=0.0001$ ), 주관적 규범( $t=2.628$ ,  $p=0.01$ )과 지각된 행위통제( $t=4.209$ ,  $p=0.0001$ )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금연행위에 대한 태도( $t=0.951$ ,  $p=0.343$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5) 금연행위 예측 요인 중 금연의도가 한 수준 증가할수록 금연행위로 갈 가능성이 1.239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지각된 행위통제는 한 수준 증가할수록 금연행위로 갈 가능성이 1.1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역사회거주 성인 남성의 계획적 행위이론(TPB)을 근거로 금연행위 및 금연의도 예측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앞으로 성인 남성의 금연행위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계획적 행위이론에 근거하여 금연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로 성인남성 흡연자의 금연의도를 예측한 결과, 이 세 요인은 38.9%의 설명력을 보였고, 지각된 행위통제, 금연행위에 대한 태도의 순으로 금연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변수로 나타났다.

금연행위 수행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금연의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금연의도가 강할수록 금연행위 수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행위통제는 금연행위에는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거주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금연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간호중재 시 금연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금연행위 및 금연의도 예측요인으로 규명된 계획적 행위이론의 요인의 정도를 파악하고, 금연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유도시키며 대상자들이 금연행위를 실제로 시도할 때 부딪히는 장애물이나 방해요인을 파악하여 금연행위를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대체기술을 키우도록 하는 중재를 포함함으로써 금연의도를 증진시켜야 함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본 연구에서 확인된 금연의도 및 금연행위 예측 요인은 지역사회 성인 흡연 남성의 금연프로그램을 위한 중재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2) 본 연구에서 금연행위에 적용한 계획적 행위이론 모델 검증 및 예측 요인 분석을 다른 건강행위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3) 본 연구는 금연의도 측정 후 4주 후 금연행위를 보았으나 금연행위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금연경과기간을 설정한 종단적 조사연구의 반복연구 수행을 제언한다.